

## 중소·벤처기업 지원위해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 5000억 조성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5000억원 규모)가 조성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절반을 정책자금에서 무담보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는 민·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5년 간 50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 존속기간은 8년 이상으로 정부가 30% 이상 출자하고 나머지는 대기업 등 민간자금과 연기금을 유치해 조달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출자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 공동개발, 인력 양성, 판로확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업 소요자금의 절반을 부담하면 정부가 정책자금(올해 3200억원)을 활용해 나머지 절반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하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을 도입하고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상위 100대 중소·벤처기업 올해 수출 51% 증가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이 관세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상반기 수출실적 상위 100대 중소기업'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은 내수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및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4% 증가한 4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전체 중소기업(34.2%) 및 대기업(41.1%)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0.5% 증가한 27억3000만달러, 기계류는 68.8% 증가한 7억5000만달러, 철강·금속은 114.1% 증가한 2억9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으며, 섬유류는 16.7% 증가한 3억7000만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세계 141개 수출대상국 중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33.7% 증가했고,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미국 및 일본으로의 수출은 50%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브릭스(BRICs,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시장에 대한 수출은 4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기업 4개월 연속 늘어 7월말 8307사

지난 2001년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던 벤처기업수가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확인업체수는 8307개사로 6월에 비해 168개사 늘었다. 벤처기업 수는 지난 2001년말 1만1392개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4월이후 월 100~300여 개사가 늘어나는 등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벤처기업 증가는 퇴출기업 감소와 신규 확인기업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신규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올들어 7월까지 총 1056개사에 달해 작년 한해 수준(1272개사)에 육박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기업과 신기술기업은 크게 늘어난 반면 벤처캐피털투자기업은 크게 줄었다.